

광주형 공영자전거 '타랑께' 돌아온다

4월 1일부터 운행 재개...9월 30일까지 350대 시범 운영 대여시간·요금체계 등 개선...주차장 51→101개소 확대

광주형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시민 곁으로 돌아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세단장한 '타랑께' 350대를 시범 운영한다.

'타랑께'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 친화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시간과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으며, 요금체계도 사용자 입장에서 전면 개선했다.

가장 먼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였던 대여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5시간 늘렸다. 운영구역도 기존 상무지구, 동천동 주변에서 지하

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농성역 주변, 광주전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까지 확대했다. 타랑께에 탑승하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도 51개소에서 101개로 두 배나 늘렸다.

요금체계는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타랑께 대여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1시간 무료 대여할 수 있으며, 1시간 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대여와 반납은 하루에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다.

대여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정보부니(QR코드)를 통해 인증하는 절차가 3~4분 가량 소요됐지만, 타랑께 시스템 개선을 통해 1

분 이내로 단축했다.

타랑께의 대여, 반납은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가능하며, 지정된 주차장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입사보증금이 부과된다. 대여방법은 타랑께 앱을 이용해 자전거에 부착된 스마트 잠금장치의 정보부니(QR코드)를 스캔하거나 등록된 대여카드를 스마트 잠금장치의 'CARD' 부분에 태그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매일 이용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타랑께 재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남인 광주시 도로과장은 "타랑께의 운영시간, 이용요금을 개선하고 이용구역도 확대한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선 인명피해 예방 안전 강화 전남도, 4월 1일까지 안전 점검

전남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까지를 '어선안전분야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선 해상수산부, 해경, 전남도, 사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여해 구명·기판·전기·소방·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살피고, 어선안전조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한다.

특히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해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소방 장비를 점검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전투표 대비 기기점검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컨벤션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종사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대비해 투표용지 출력 등 선거에 필요한 기기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최종 협상...아파트 분양가 관심 집중

사업자 이익 줄이고 분양가 인하 28일 도시계획위 심의 후 협약 체결

광주 최대 규모와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비공인 시설(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분양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3가지 전제 조건을 분양가와 공공기여에 반영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3가지 환수 대상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률 상향(14.27%)으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 선분양 재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 등이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비 차액은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고, 용적률 상향 수익과 감면액 250억원은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이익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분양가 인하, 공공기여 확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타당성 검증에서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후분양(3495만~3822만원) 대비 낮아진 2425만원으로 산정됐지만, 강 시장의 이날 발언에 따라 분양가는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공공기여와 관련해

서도 사업자인 빛고를중앙공원개발은 최대 1000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신속·투명·공개' 등 3대 원칙을 강조해 온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타당성 검증 결과 요약본, 지난 8일 총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공개토론회(6일), 전문가 검증(18일), 도시계획위원회(21일)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전을 재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자와 새로운 협약 체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더 이상의 논쟁은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신정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나설 것"

민주당 나주·화순 후보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 선거구 후보는 농협중앙회를 이전, 나주를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육성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26일 "현재 혁신도시에는 에너지 공기업 4곳(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농생명 5곳(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모두 16개 기관, 7522명이 이전했다"면서 "아직 목표인 구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한 채 3만 9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총사자 2034명, 자산 144조 7662억원 규모의 핵심 기관인 농협중앙회를 이전, 나주에 집적화된 농생명 공공기관과 연계해 나주를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1만명이 넘는 교육생이 찾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이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게 신 후보 공약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서삼석 "압승하고 정권 심판에 앞장 서겠다"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후보

서삼석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후보는 2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갖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서 후보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10명을 임명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상설특별위원회, 정권심판본부 등 통합 선대위를 꾸려 선거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 후보는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는 각오로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 선거운동을 통해 압승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했다.

그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민생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힘있는 3선 의원으로 정권 심판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비 확보에 힘써 농·산·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낙연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만들 것"

새로운미래 광주 광산을 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광산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는 26일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R&D사업인 '인공지능 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했다"며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돼 1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1단계로 2020년~2024년까지 4116억원을 투입해 국가 인



공지산업 융합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5년~2029년 예정인 2단계 사업을 위해 예산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광주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예산 면제 사업으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제1호 법안으로 국가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문금주 "추락한 국격·국민의 삶 회복에 최선"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

문금주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후보는 26일 장흥군 해동사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제 및 추모역사관 개관식'에 참석,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운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로 국격이 추락했고 미국을 향한 무분별한 사대주의로 국가 경제가 추락하는 등 나라살림, 국민 삶이 파



팍해져간다고 있다"며 정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안중근 의사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추락한 국격과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